성경인물(08)_꿈꾸는 자, 요셉

성경말씀: 창 37:3-11

1. 우리는 지난 주에 야곱을 살펴 보았다. 야곱의 인생은 첫 출발이 좋지 않았다. 남의 것 속여서라도 빼앗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다. 이후로 야곱은 변했다. 양보하고, 포기할 줄도 알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정복당했다. 그제서야 야곱은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

2. 오늘은 요셉이다. 세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다. 자식이 없어 갖은 설움 다 받다가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다른 자식들보다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다. 창 37:3이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u>채색옷을</u> 지었더니."**

3. 채색옷은 값비싼 옷이다. 요셉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의 나이 열일곱 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말이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꿈 이야기로 시작된다.

4. 흥미로게도 요셉이 등장하는 창 36-50장에는 '꿈'이라는 단어가 모두 28번이나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꿈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하다. 원래 '꿈'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할롬(חֲלוֹם)'이다. '묶다', '살찌게 하다', '마음에 들다',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할람(חָלַם)'에서 파생되었다. 그럼 꿈을 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건 스스로를 어디엔가 묶는 것이다.

5. 먹어 영혼이 살찌게 하고, 마음에 들어 가슴에 깊이 품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스스로를 견고히 묶어주고, 낙심할 때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것이 꿈이다. 꿈을 이렇게 이해해야 요셉의 생애가 이해가 된다.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마침내는 이루어지고, 성취될 꿈 때문이었다.

6. 남극탐험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두 인물이 있다. 로버트 스캇과 어니스트 새클턴이다. 이들은 3년의 시차를 두고 남극탐험에 도전했는데, 그 결과가 극과 극이었다. 스캇과 그의 탐험대는 1911년 12월에 세 번째로 남극탐험에 나섰다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이듬해 11월에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때 스캇의 시신 곁에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7.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며, 우리의 시신은 우리가 가진 불굴의 정신과 인내력을 보여줄 것이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모든 꿈은 사라져 버렸다." 반면에 새클턴은 1914년 11월에 남극탐험의 전초기지에 도착한다. 다음 해 1월 전에 남극대륙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빙산에 갇혀 그 이듬해인 1916년 8월까지 조난을 당했다.

8. 그런데 조난 당한지 1년 7개월만에 이들 전원은 기적적으로 무사귀환 한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새클턴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말했다. "나와 대원들은 남극 얼음 속에 2년이나 갇혀 있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꿈을 버린 적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일단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어라. 그리고 큰 방향을 잡은 다음 표류하라!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라!"

9. 두 번째 요점은 ***요셉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다.***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 노예로 팔았다. 그리고는 무엇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가? 창 37:31이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염소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들고 갔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10. 무엇을 들고? 피로 물든 요셉의 채색옷이다. 이 역설을 잘 기억해야 한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입는 채색옷은 죽음을 상징하는 피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채색옷은 피에 젖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는 남다른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 요셉은 눈물을 참 많이도 흘린 사람이었다.

11. 사실 성경에서 소개하는 고난의 주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의 2절 가사는 이렇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저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신비를 더 깊이 알고자 늘 흠모한다.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다.

12.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람들? 설교? 교회 일? 아니다. 그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제일 힘든 것은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를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

13. 요 12:24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솔방울을 벌려 씨앗을 내놓는다.<사진> 그러나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200도까지 오를 수는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산불 났을 때다. 왜인가? 대부분의 초목이 타 죽어 재가 되니, 거름이 풍부한 때이기 때문이다.

14. 햇빛을 가리고 있던 나무들이 사라지니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세콰이어는 어떻게 이 뜨거운 열기를 견디느냐? 이 나무의 껍질은 스폰지처럼 푹신해서 수분을 머금는데, 이 때문에 세콰이어는 일주일간의 산불도 견디어 낼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조건을 견디어내고 싹을 틔운 세콰이어는 지상으로부터 100미터 높이까지 자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된다.

15. 산불의 뜨거움이 없이는 100미터 높이의 웅장한 세콰이어 나무도 없다. 성도 여러분!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고난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고치를 찢고 나오는 고통이 없이, 나비는 하늘을 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인내하라.

16. 세 번째 요점은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했다. 창 41:42이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다. 왕이나 입는 옷이다. 그걸 요셉에게 입혀 준 것이다.

17. 흥미롭지 않은가?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은 피에 젖고, 찢겨져야 했다. 요셉은 그 옷을 벗어야 했다.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채색옷을 벗어야 했던 것이다. 철강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 한 과일가게 앞에 섰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너 앵두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한 줌 집어 먹으렴!"하고 말했다. 그러나 카네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18. 그러자 주인은 기특하다는 듯이 앵두 한 줌을 집어서는 건네 주었고, 그제서야 카네기는 인사를 하고 앵두를 받았다. 곁에 섰던 어머니가 물었다. "왜 처음엔 가만히 있었니?" 그러자 카네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니까 그랬지!" 누구의 손이 큰가? 누구의 생각이 큰가? 여러분인가?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 6:9-10이다.

1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싱겁다. "당신"이 빠졌다. 여기 임해야 할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고, 여기 이루어져야 할 뜻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다.

20. 요셉은 채색옷 입고, 아버지 야곱 사랑 받으며 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벗기시고, 세마포 옷 입히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은 자기 배만 곯지 않고 살기를 바랬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채색옷을 벗기셔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벗지 않았을 것이니, 형들의 시기심을 허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

21.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진 고난 견디어내고, 결국엔 세마포 옷 입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창 45:7-8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놀라운 고백이다.

22. 요셉은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 애굽에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은 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보냄 받은 자리가 애굽의 노예생활이고, 감옥생활이어도 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23.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고난을 견디어 내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걸 예배라고 부른다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예배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테리 팍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사진> 그는 촉망 받는 캐나다의 육상선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암이었다.

24. 그는 다리를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른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캐나다 횡단 마라톤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1980년 4월 마라톤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의족 때문에 다리 절단면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을 때, 신문사들은 그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캐나다 총리까지 만나게 되었다.

25. 목표를 묻는 총리를 향해 테리는 대답했다. "저는 암환자를 돕기 위해 암연구소에 10만 달러를 후원하려는 목표를 가지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도와 주신다면 모금 목표를 100만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상파를 통해 캐나다와 북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모금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26. 그러던 중 테리는 달리기를 하던 도중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다. 이때 한 기자가 묻는다. "테리 씨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테리는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말했다. "내 달리기를 대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뒤 그는 숨을 거두고 만다. 물론 그의 달리기는 끝마쳐졌고, 후원금으로 총 2억 4천 백만 달러, 2,800억원이 모금되었다.

27. 그는 현재에도 캐나다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다. 그의 동상이 캐나다 전역에 세워졌고, 많은 도로와 건물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 나는 궁금했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 다행히 그의 형이 어느 매체와 나눈 인터뷰 기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신앙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의 형 프레드 팍스가 대답한다. "테리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28. 그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라! 고난을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